

# 일 지역 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

한 선 희<sup>1)</sup> · 유 혜 순<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표설정, 자기통제 등과 같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관리와 내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셀프리더십에 주목하게 되었다(서문경애, 장성옥, 조경희, 김인아 및 김수정, 2006).

셀프리더십의 개념은 Manz와 Sims (199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셀프리더십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을 지닌 리더십으로 지시, 명령, 통제, 보상, 처벌 등에 의해 발휘되는 전통적인 리더십보다는 자기 스스로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정하거나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아비판이나 처벌을 하는 등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직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조직유효성 지표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자기주도적 학습, 조직시민 행동 및 개인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성, 2002).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박민아, 2009)”과 “간호대 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

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양남영, 문선영, 2011)”,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 학생들의 희망과 행복에 미치는 효과(민순, 유경원, 김혜숙, 2010)” 등이 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이아, 박경민, 이병숙, 2003)로는 간호조직에서도 일반 간호사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간호현장에서 창의력 개발과 동기유발을 확대시켜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로는 Houghton, Bonham, Neck과 Singh (2004)의 연구와 DiLiello와 Houghton(2006)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결과변수로 몰입, 자율성, 신뢰, 독립성, 긍정적 정서, 직무만족, 자기효능감 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간호학 분야에서 셀프리더십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또는 직무만족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특히 셀프리더십은 신세대인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변수라 판단된다.

임상실습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간호현장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으로 간호교육에 있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대 학생들은 병원이라는 친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의료인과 상호관계를 하면서 환자들의 간호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간호를 실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임상실습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다. 문미숙(1998)

**주요어 :** 간호대학생, 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노출

\* 본 연구는 2011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shhan@wu.ac.kr)

2)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투고일: 2011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2012년 2월 29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3일

의 연구는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실습 중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병원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소함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박미영과 김순이(2000)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전인적 간호 및 간호전문직 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습과 간호수행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박지현(2008)과 박춘자(1997)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조남옥(1998)과 김혜숙(2002)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영역별로 스트레스가 높은 영역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임상실습을 통해 느끼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셀프리더십 등과의 연관성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기노출이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과거의 경험 등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행동으로, 이를 통해 자기이해와 타인이해가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자기실현 또는 자기성장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김교현, 1992). Pennebaker(1989)에 따르면,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경우, 신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신체적·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며 자기노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므로 자기 효능감을 낮게 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가 받는다고 하였으며, Jourard(1971)는 인간이 자기노출의 경험을 통해서 참 자기와 접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타인과 우호적인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덕웅, 박준호와 김교현(2004)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노출이 심리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에 관해 자기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 건강지각의 수준이 높았으며, 매우 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기노출이 행복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자기노출은 간호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자기능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를 보면,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셀프리더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자기노출

의 정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기노출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교육이나 실습지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의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용어 정의

### ●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이론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감정 등에 초점을 맞춘 자율성의 속성을 지닌 리더십이다(Manz & Sims, 1995).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Manz(1983)가 개발한 도구를 김한성(200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 요인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간호대 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으로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불안·공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황성자, 2006). 본 연구에서는 황성자(200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 학생이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느끼는 스트레스를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 자기노출

자기노출은 자신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행동이다(김교현, 1992).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Jourard(1971)가 개발하고 김지연(1997)이 보완한 자기노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I시에 소재한 1개 3년제 간호대학과 J시에 소재한 2개 4년제 간호대학 등 총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중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출은 G power program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25로하고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크기는 200명이었다. 이 학생들은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연구시점에 학과시험이 없거나 끝난 상태이며, 셀프리더십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3·4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이 불성실 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 42부를 제외한 258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 도구

- 셀프리더십의 측정도구는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등 6개 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5점 척도로써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한성(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총 58문항으로 구성되며,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으로 상황특성에는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보호자 태도 6문항, 실습환경 9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갈등 2문항이고, 개인특성에는 심리적 요인 7문항, 지식·기술적 요인 6문항, 사회적 요인 4문항, 외부적 조정요인에는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측정 기준은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성자(200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자기노출의 도구는 자기감정, 자기행동, 자기생각, 자기신앙, 타인과의 관계, 이성과 성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다른 사람과 결코 이야기 해 본 적이 없다’ 1점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6점까지 6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노출 정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지연(199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5 이었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임상 실습스트레스, 자기노출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의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노출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 종교, 건강상태, 대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첫 희망진로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93.4%, 남학생이 6.6%였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이 44.2%, 없는 사람이 55.8%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60.5%, ‘보통’이 36.8%, ‘나쁨’이 2.7%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나쁨’이 2.7%, ‘보통’이 32.6%, ‘ 좋음’이 48.4%, ‘매우 좋음’이 16.3%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28.7%, ‘취업률이 높아서 및 해외진출’ 24.8%, ‘적성과 흥미’ 24.0%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매우불만족’이 0.8%, ‘불만족’이 5.8%, ‘보통’이 38.8%, ‘만족’이 46.5%, ‘매우만족’이 8.1%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불만족’이 2.7%, ‘불만족’이 17.4%, ‘보통’이 45.3%, ‘만족’이 30.6%, ‘매우만족’이 3.9%로 나타나 전공에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첫 희망진로는 ‘병원취업’이 85.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간호직 공무원’이 7.0%, ‘보건교사’가 2.7%, ‘기타’가 2.3%, ‘진학’이 1.9%, ‘산업간호’가 0.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5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Gender	Female	241	93.4
	Male	17	6.6
Religion	Yes	114	44.2
	No	144	55.8
Health status	Good	156	60.5
	Moderate	95	36.8
	Poor	7	2.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oor	7	2.7
	Moderate	84	32.6
	Good	125	48.4
Application motivation	Very good	42	16.3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7	6.6
	Inducement by parents or friends	74	28.7
	For the domestic or overseas employment	64	24.8
	Aptitude and interest	62	24.0
	Professional occupation	34	13.2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The others	7	2.7
	Very dissatisfied	2	0.8
	Dissatisfied	15	5.8
	Moderate	100	38.8
	Satisfied	120	46.5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21	8.1
	Very dissatisfied	7	2.7
	Dissatisfied	45	17.4
	Moderate	117	45.3
	Satisfied	79	30.6
Desired career after graduation	Very satisfied	10	3.9
	Hospital nurse	220	85.3
	Graduate course	5	1.9
	School nurse	7	2.7
	Company nurse	2	0.8
	Government officials	18	7.0
	The others	6	2.3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9점, 표준편차는 .43이었고, 각 하위영역들의 평균평점은 자기보상 3.82점, 자기기대 3.72점, 리허설 3.64점, 목표설정 3.61점, 자기비판 3.42점, 건설적 사고 3.34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3점, 표준편차는 .56으로,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으로 구분 되는데, 외부적 조정요인이 가장 높은 3.6점이었고 다음으로 상황특성이 3.48점이었다. 이는 외부적 조정요인으로서 과제 물이 3.72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여 임상실습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인의 태도 3.70점, 보호자의 태도 3.63점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인 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은 6점 만점으로 평균평점 3.35점, 표준편차는 .92였고, 각 하위영역들의 평균평점은 자기감정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행동 3.52점, 자기생각 3.46점, 이성과 성 3.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

셀프리더십은 대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성별, 종교, 건강상태 및 첫 졸업 후 진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관계는 ‘매우 좋음’이 평균평점 3.72점으로 ‘보통’ 3.38점과 ‘나쁨’ 3.60점으로서 대인관계에 따른 셀프리더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8.39, p<.001$ ). 학생들

<Table 2>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disclosure (N=258)

Variables	Mean ±SD	Min	Max
Self-leadership	3.59 ± .43	2.00	5.00
Self-expectation	3.72 ± .61	1.67	5.00
Rehearsal	3.64 ± .63	1.67	5.00
Goal-setting	3.61 ± .62	2.00	5.00
Self-compensation	3.82 ± .62	2.00	5.00
Self-criticism	3.42 ± .74	1.00	5.00
Constructive mind	3.34 ± .61	1.67	5.00
Stress in clinical practice	3.43 ± .56	1.68	5.00
Situational characteristics	3.48 ± .54	1.90	5.00
Attitude of medical personnel	3.70 ± .60	1.84	5.00
Attitude of patients/family	3.63 ± .68	1.50	5.00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43 ± .58	1.89	5.00
Clinical practice situation	3.39 ± .57	1.78	5.00
Role conflict	3.27 ± .91	1.00	5.00
Personal characteristics	3.23 ± .65	1.47	5.00
Psychological factors	3.32 ± .65	1.43	5.00
Knowledge/skills	3.45 ± .69	1.50	5.00
Social factors	2.90 ± .81	1.00	5.00
External regulators	3.60 ± .66	1.23	5.00
Assignment reports	3.72 ± .71	1.00	5.00
Academic schedule	3.47 ± .70	1.20	5.00
Self-disclosure	3.35 ± .92	1.12	6.00
Self-feeling	3.74 ± 1.09	1.00	6.00
Self-behavior	3.52 ± 1.11	1.00	6.00
Self-worship	3.05 ± 1.36	1.00	6.00
Relationships with others	3.12 ± 1.34	1.00	6.00
Opposite sex and sexuality	3.22 ± 1.11	1.00	6.00
Self-thoughts	3.46 ± .92	1.09	6.00

의 대학 지원 동기와 셀프리더십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48 p=.001), 그 중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3.73점)’, ‘전문직이라서(3.70점)’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평균평점은 4.04점, ‘만족’ 군은 3.65점으로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F=12.85, p<.001). 또한, 임상실습만족도는 ‘매우만족’이 평균평점 4.07점으로, ‘만족’ 3.71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셀프리더십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6.72, p<.001).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좋음’이 ‘보통’보다 높았으며, 지원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 ‘전문직이라서’가 ‘고교 성적에 따라서’보다 높았다. 또한 전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보통’보다, ‘보통’이 ‘매우 불만족’보다 높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노출 정도의 관계에서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노출 정도도 높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97,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자기노출은 대인관계에 있어 ‘매우 좋음’이 ‘나쁨’과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는 모든 특성별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Table 3>.

###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셀프리더십과 자기노출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16, p<.010),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에서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31, p<.010). 그러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Differences of self-leadershi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self-disclosu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58)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Self-leadershi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Self-disclosure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Gender	Female	3.58±0.43	-1.57	3.45±0.55	1.41	3.36±0.92	0.54
	Male	3.75±0.47	(.118)	3.24±0.65	(.242)	3.24±1.06	(.593)
Religion	Yes	3.63±0.43	1.63	3.46±0.57	0.72	3.40±0.92	0.77
	No	3.55±0.42	(.105)	3.41±0.54	(.470)	3.31±0.92	(.443)
Health Status	Good	3.63±0.43		3.43±0.56		3.36±0.94	
	Moderate	3.53±0.41	2.43	3.43±0.56	0.04	3.34±0.90	0.02
	Poor	3.42±0.63	(.090)	3.38±0.47	(.964)	3.39±0.84	(.980)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oor <sup>a</sup>	3.60±0.32		3.32±0.18		3.15±0.68	
	Moderate <sup>b</sup>	3.38±0.37	8.39	3.44±0.49	0.54	3.15±0.96	4.97
	Good <sup>c</sup>	3.68±0.43	(<.001)	3.40±0.59	(.703)	3.31±0.85	(.001)
	Very good <sup>d</sup>	3.72±0.42	b<d	3.53±0.60		3.88±1.09	a,b<d
Application motivation	School record <sup>a</sup>	3.28±0.30		3.37±0.31		3.09±0.82	
	Inducement of parents or friends <sup>b</sup>	3.58±0.45	4.48	3.49±0.58		3.51±1.04	
	Job overseas <sup>c</sup>	3.50±0.44	(.001)	3.41±0.55	0.67	3.27±0.88	1.19
	Aptitude/interest <sup>d</sup>	3.73±0.38	a<d,e	3.38±0.61	(.649)	3.28±0.88	(.316)
	Specialized job <sup>e</sup>	3.70±0.40		3.42±0.49		3.34±0.77	
	The others <sup>f</sup>	3.56±0.35		3.70±0.69		3.79±1.16	
Satisfaction Nursing as a major	Very dissatisfied <sup>a</sup>	2.89±1.26		2.36±0.95		3.34±0.90	
	Dissatisfied <sup>b</sup>	3.40±0.42	12.85	3.32±0.47	2.11	3.33±0.96	0.72
	Moderate <sup>c</sup>	3.46±0.37	(<.001)	3.44±0.51	(.081)	3.27±0.91	(.682)
	Satisfied <sup>d</sup>	3.65±0.38	a<c<e	3.46±0.55		3.37±0.88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sup>e</sup>	4.04±0.49		3.45±0.77		3.64±1.24	
	Very dissatisfied <sup>a</sup>	3.56±0.95		3.37±1.04		3.37±0.85	
	Dissatisfied <sup>b</sup>	3.51±0.37	6.72	3.42±0.47		3.18±0.95	
	Moderate <sup>c</sup>	3.50±0.42	(<.001)	3.42±0.54	0.71	3.34±0.95	0.73
	Satisfied <sup>d</sup>	3.71±0.36	a,b,c<e	3.50±0.54	(.585)	3.45±0.88	(.572)
Plans after Graduation	Very satisfied <sup>e</sup>	4.07±0.27		3.21±0.82		3.53±0.94	
	Hospital nurse	3.60±0.40		3.46±0.55		3.37±0.92	
	Graduate course	3.50±0.90		3.80±0.68		3.06±0.73	
	School nurse	3.50±0.60		3.16±0.23		3.73±0.73	
	Company nurse	3.94±0.08	0.56	3.57±0.34	2.19	3.29±0.35	0.50
	Government officials	3.58±0.57	(.734)	3.11±0.56	(.056)	3.20±1.02	(.775)
	The others	3.44±0.31		3.43±0.56		3.35±0.92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leadershi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self-disclosure (N=258)

	Self-leadershi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Self-disclosur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108		
Self-disclosure	.216**	.231**	

\* p<.05, \*\* p<.01

## 논 의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평균평점 3.59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의 비교에서는 3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민아(2009)가 보고한 셀프리더십 연구에서

3.56점, 조경희 (2003), 김지영과 홍주영(2007)이 보고한 3.51, 3.50점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김희경(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3.61, 양남영과 문선영(2011)의 연구결과 3.72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부영역별 평균점수를 보면 자기보상,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이 높은 순인 반면, 자기비판, 건설적 사

고는 낮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 학생은 자신이 수행한 도전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보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동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려운 상황과 장애를 기회로 전환하는 긍정적 사고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대인관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대인관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박민아(200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셀프리더십이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후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좋음'이 '보통'보다 높았으며, 전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보통'보다, '보통'이 '매우 불만족'보다 높았다. 이는 긍정적 사고 패턴을 가진 개인은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평점은 3.43점으로 박인순, 김창숙, 김란, 김영재와 박명희(2005)의 연구에서 3.87점, 황성자(2006)의 연구에서 3.56점에 비하여 낮으며,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의 2.98점보다는 높았으며, 박지현(2008)의 연구의 3.40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연구자마다 대상자 수와 학년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수준이 보통 이상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부요인에서는 외부적 조정요인의 과제물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특성의 사회적 요인이 2.9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황성자(2006), 박지현(2007), 박민아 (2009), 김순례와 이종은(2005), 박인순 등(2005)의 연구 결과에서 과제물에 대한 스트레스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한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 학생의 임상실습 과제물에 대하여 지도교수의 선택적인 과제물 부과 및 과제물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상황특성의 의료인의 태도(3.70점)로 이것은 박지현(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박인순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의사, 간호사를 자기 보조자로만 여길 때'가 인간관계 영역 중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박미영 등(2000)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중 간호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의료인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간호 대학생들이 의사나 간호사의 관계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간호학생들에 대한 의료진의 잦은 업무전담과 비효율적인 실습지도는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노출 정도는 평균평점 3.3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지현(2008)의 연구결과인 3.32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하위영역에서는 자기감정이 3.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행동, 자기생각, 이성과 성, 타인과의 관계, 자기신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자기노출은 대인관계에 있어 '매우 좋음'이 '나쁨'과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노출을 안 하고 억압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문화에 비해 최근에는 서로 간에 자기 노출을 통해 이전보다 간호대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많이 표현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후회스럽거나 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 자기노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노출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목표설정과 자기보상, 자기기대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자기감정과 자기생각, 자기행동을 통한 자기노출이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과의 관계는 순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진주(2000)의 연구와 박지현(2008)의 연구에서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기표현 행동정도도 높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조남옥(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최근 신세대들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기노출은 실습지도자가 학생들의 자기노출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점이 전제될 경우에만 학생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노출할 수 있게 해주므로 임상실습 적응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박민아(200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노출의 정도가 높아지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노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의 긍정적 사고능력을 기르며,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자의 수용 자세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자기노출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으며, 전북지역 I 시, J시에 소재한 3·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셀프리더십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3·4학년 2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와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 평균 평점으로 3.59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자기보상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적 사고가 3.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43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외부적 조정요인 중 과제물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황특성(3.48점), 개인특성(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노출은 6점 만점 평균 평점으로 3.35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자기감정이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행동, 자기생각, 이성과 성, 타인과의 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신앙이 3.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의 정도에 따라 셀프리더십과 자기노출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셀프리더십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자기노출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노출을 많이 하였고, 마찬가지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노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셀프리더십과 자기노출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셀프리더십 역량이야말로 다른 역량보다도 개인의 발전과 간호업무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복잡하고 역동적인 간호 실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 적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예비간호사인 간호대 학생들에게도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셀프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 하여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수행능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 학생은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기표현 행동정도도 높아지므로 자기노출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실습지도자의 자기노출을 수용 자세를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셀프리더십과 자기노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논문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셀프리더십과 자기노출의 증대가 임상실습의 스트레스를

실제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발굴,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교현(1992).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11(1), 81-107.
- 김지연(1997).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집단응집력, 대인관계 지향성 및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김지영, 홍주영(2007). 병원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 *간호행정학회지*, 13(2), 184-190.
- 김순례, 이종은(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98-106.
- 김한성(2002). *중학교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송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김혜숙(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0(1), 64-76.
- 김희경(2007). 간호사의 인간관계, 의사소통, 창의적 행동, 간호서비스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임상간호연구*, 13(1), 25-36.
- 문미숙(1998).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 민순, 유경원, 김혜숙(2010, 3월).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간호대 학생들의 희망과 행복에 미치는 효과. *대한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대회*, 381-397.
- 박경남, 박미경(2008).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조직몰입 및 간호업무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4(1), 63-71.
- 박미영, 김순이(2000).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 실습체험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23-25.
- 박민아(2009).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북.
- 박인순, 김창숙, 김란, 김영재, 박명희(200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피로조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151-160.
- 박지현(2008).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신체증상 및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박춘자(1997).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와 불안야기 상황 연구. *간호교육학회지*, 3, 34-45.
- 서문경애(2005). 간호사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개인성과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1(1), 1-14.
- 서문경애, 장성옥, 조경희, 김인아, 김수정(2006). 간호사의 셀



- 프리더십과 간호업무성과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2(1), 151-158.
- 서이아, 박경민, 이병숙(2003). 일반간호사의 조직 내 의사소통 유형과 직무 및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7(2), 317-332.
- 양담영, 문선영(2011).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7(2), 216-225.
- 양진주(2000). 간호학생 시 임상실습 시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기표현행동 및 간호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보건대학 학술저널*, 25, 393-417.
- 조경희(2003). 간호학생들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317-330.
- 조남옥(1998).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317-331.
- 한덕웅, 박준호, 김교현(2004).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자기노출, 반복생각 및 정서경험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99-130.
- 황성자(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및 도구검증. *예수간호논문집*, 4(1), 35-54.
- 황성자(2006).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05-213.
- DiLiello, T. C., & Houghton, J. D. (2006). Maximizing organizational capacity for the futur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319-337.
- Houghton, J. D., Bonham, T. W., Neck, C. P., & Singh, K.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personal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9(4), 427-441.
- Jourard, S. M. (1971). *Self-disclosur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ransparent self*.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nz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J: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Manz, C. C., & Sims, H. P. Jr. (1995). *Business Without Bosses-How self-Managing Teams are Building High-Performing Compan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Pennebaker, J. W. (1989). Confession, inhibition, and disease.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New York: Academic Press.

##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Han, Sun Hee<sup>1)</sup> · Yu, Hye Soon<sup>2)</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2)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disclosure in a group of college female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58 participants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August, 2011.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elf-leadership' depend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pplic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also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disclosure' depend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 of 'stress of clinical practice' depending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and self-disclosur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disclosur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develop diverse programs that can reduce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self-leadership and self-disclosure.

**Key words :** Nursing Student, 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elf Disclosur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th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n 2012.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an, Sun Hee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501 Iksandaero, Sinyong-dong, Iksan-si, Jeonbuk, 570-750, Korea

Tel: 82-63-840-1312 Fax: 82-63-840-1319 E-mail: shhan@wu.ac.kr